

2·28민주운동과 탈냉전의 흔적*

안 도 현**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남긴 교우지와 그들의 4월 혁명기 활동을 중심으로 2·28민주운동에 드리워진 탈냉전의 흔적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학생들이 냉전논리에 갇혀 있었다면, 자유진영의 중심 국가인 미국을 비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탈냉전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그리고 한미경제협정과 관련해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둘째,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북한과 남북통일에 관해 민족적이고 평화적인 시각을 간직하고 있었다. 냉전논리 안에서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박멸해야 할 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북한을 우리와 동일한 민족으로 인식했고, 평화적 통일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한국전쟁에 관해 인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한국전쟁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과 전쟁의 비극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전쟁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무기 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탈냉전 의식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제어 : 2·28민주운동, 탈냉전, 냉전, 반동정신, 평화공존

I. 서론

1950년대는 냉전과 탈냉전¹⁾이 중첩되던 혼돈의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트루

* 이 논문은 2022년 화성장학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지원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학술연구비로 수행한 연구이다.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연구위원.

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으로 촉발된 냉전체제는 베를린 봉쇄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체제(Bipolar System)로 자리 잡았다.²⁾ 한국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경제원조를 대폭 줄이고 군사원조를 강화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했으며, 영국이 지지하는 중국의 유엔 참여를 반대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했다.³⁾

그러나 스탈린 사망 이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시작된 소련 대외정책의 변화는 미국에 위기감을 안겨줬다. 소련은 1953년을 기점으로 후진국들과 경제협정을 맺고 제3세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점차 강화했다.⁴⁾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경제원조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1958년 아이젠하워의 연두 기자회견,⁵⁾ 군사원조 위주의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⁶⁾ 상원의원 케네디가 주도한 인도에 대한 경제지원안의 의회 통과와 1957년의 개발차관기금의 설립⁷⁾ 등으로 나타났다. 군사원조 중심의 미국 대외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제기됐다.⁸⁾

또한, 비동맹의 중립 외교노선을 표방하며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휴양도시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이하, 반둥회의⁹⁾)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¹⁰⁾ 애초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합의한 ‘평화 5

1) 본 연구에서의 탈냉전은 흔히 통용되고 있는 소련 붕괴 이후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가 처음으로 위기에 봉착한 시기, 즉 스탈린 사망 이후의 미소 긴장완화와 반둥회의로 상징되는 제3세계가 등장한 시기를 지칭한다.

2) 베른트 슈퇴버, 최승완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2008, 서울: 역사비평사, p.67.

3) 박태균, “냉전체제와 한국 정치: 1950년대 자유당과 진보당”, 『세계정치』, 24(1),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2, p.99.

4) Rostow, W. W., *Eisenhower, Kennedy, and Foreign Aid*, 1985,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17.

5) 이창렬, “美·소의 後進國經援競爭”, 『사상계』, 1958년 5월호, p.207.

6) 박태균, “1960년대 초 미국의 후진국 정책 변화: 후진국 사회변화의 필요성”, 『미국사연구』, 20, 한국미국사학회, 2004, pp.168-169.

7) Rostow, W. W., op. cit., pp.3-7·139-140.

8) 물론 1950년대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들, 즉 매카시즘 열풍(1950~1954), 이집트에서의 반제국주의 혁명(1952), 쿠바에서의 공산주의 혁명(1953~1958) 등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외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의존적이었던 한국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아 냉전체제에 깊이 빠져든 것은 사실이지만, 1950년대의 탈냉전적 흐름 역시 한국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9) 반둥회의는 ‘비동맹(non-alignment)’이라는 정치·외교상의 용어와 1970년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실천적 운동의 차원으로 이동하게 될 ‘제3세계(Third World)’라는 개념의 실질적인 모태가 된다(Lee, C. J., *Making a World after Empire: The Bandung Moment and Its Political Afterlives*, 2010,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p.15).

10) 장세진, 『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1945~1972)』, 2018, 서울: 푸른역사, pp.148-149.

원칙'의 구상을 확장한 반둥회의에서는 대국들의 압력에 맞서서 독립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신생국들의 확고한 내셔널리즘이 반영된 '반둥평화 10원칙'이 제시됐다.¹¹⁾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아시아 냉전 질서에 도전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이승만 시대의 대외환경은 불안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격화된 동서냉전으로 국가의 국제적인 승인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¹²⁾ 또 한편으로는 제3세계의 등장과 미소의 대외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탈냉전의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혼란한 시기였다.¹³⁾ 비록 이승만의 시대가 12년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냉전과 탈냉전이 중첩되었던 1950년대 내내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위기는 1960년 2월 28일 임계점을 넘어섰다. 1948년 집권한 이승만 정부는 변화무쌍한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강력한 반공주의에 기반한 반민주 독재 권력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 결과 1956년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의 자리를 민주당 장면 후보에게 빼앗겼고,¹⁴⁾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개표 과정에서의 노골적인 부정에도¹⁵⁾ 불구하고 개헌선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고령(1875년생)을 감안했을 때, 다가올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부통령 선거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승리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는 대구에서 저항에 부딪혔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유세가 2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대구 수성천 변에서 있을 예정이었다.¹⁶⁾ 합법적인 선거운동이었지만, 자유당은 청중들의 접근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다. 자유당 경북도당은 2월 10일 대구시의 각 기관장과 초·중·고 학교장을 소집해 28일에는 민주당의 유세가 끝나는 시각까지 동회와 직장 단위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학생들은 일제히 등교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2월 27일 오후 1시 대구에서 개최된 자유당의 선거 유세에 청중을 동원하기 위해 각 기관과 업소의 업무 및 학

11)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둥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사이』, 1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pp.141-144.

12)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자유민주주의론과 냉전담론의 확산”, 『한국사학보』, 66, 고려사학회, 2017, p.283.

13) 박태균, 앞의 논문, 2002, p.84.

14) 유명철, “1950년대 전국 제1의 야당 도시는 대구(大邱)다”, 『국제정치연구』, 20(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7, p.40.

15) 김진흠, “1958년 5·2총선 연구: 부정 선거를 중심으로”, 『사립』, 44, 수선사학회, 2013, pp.299-304.

16) 심재택, “4월 혁명의 전개과정”, 『4·19혁명론』, 한완상·이우재·심재택 외 지음, 1983, 서울: 일월서각, p.26.

교의 수업을 낮 12시에 마치도록 강요한 것과 비교하면 불공정한 처사였다. 또한, 이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부정선거였다.¹⁷⁾ 이에 대구의 고등학생 약 2천여 명은 2월 28일 오후 ‘학원의 정치도구화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저항했다.¹⁸⁾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와 1950년대 후반 전개된 대외환경의 탈냉전적 흐름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2·28민주운동을 1950년대의 탈냉전적 흐름과 연관짓는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 연구들은 2·28민주운동의 발생 원인과 정신을 주로 국내적 차원에서 발굴하는 데 그쳤다는 공통된 한계점이 있다. 채장수는 2·28민주운동을 이승만 정권의 장기독재와 조직적인 부정선거운동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¹⁹⁾ 최병덕은 이승만·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교육현장에 대한 강제, 인권유린에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항거한 학생운동이라고 밝혔다.²⁰⁾ 또 김일수는 2·28민주운동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욕망에 저항한 민주주의 회복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고,²¹⁾ 안도현·변영학은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가능하게 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을 농민사랑, 정의감, 민주성, 민족애, 순수성, 정치·경제적 식견, 혁신성 등이라고 밝혔다.²²⁾ 그리고 윤순갑은 2·28민주운동의 배경으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강권성과 대미 종속적 경제구조와 교육기회의 확대와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등을 꼽았다.²³⁾ 유일하게 김태일이 2·28민주운동을 사건적 수준(2월 28일의 일요일 등교지시)과 국면적 수준(이승만 정권의 독재)을 넘어 구조적 수준(남북분단과 냉전체제)에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²⁴⁾ 그도 구조적

17) 유명철,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 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57(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8, p.39.

18) 2·28민주운동기념사업60년편찬위원회, 『2·28민주운동기념사업60년 제1권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사업회 활동』, 2021,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pp.35-36.

19) 채장수, “2·28 대구민주운동의 의미론: 민주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1(3), 대한정치학회, 2004, pp.119-141.

20) 최병덕, “전통사상적 관점에서 본 2·28민주운동 결의문의 정신과 의미”, 『대구경북연구』, 20(1), 대구경북연구원, 2021, pp.1-25.

21) 김일수,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본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지향”, 『대구경북연구』, 20(2), 대구경북연구원, 2021a, pp.111-131.

22) 안도현·변영학,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 연구: 2·28민주운동 직후 발행된 교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1(3), 대구경북연구원, 2022, pp.1-29.

23) 윤순갑, “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대한정치학회보』, 26(4), 대한정치학회, 2018, pp.155-176.

24) 김태일, “4월 혁명의 출발: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4(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pp.239-260.

수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개시키지 못했다.

물론 2·28민주운동의 발생 원인과 그 정신을 탈냉전적 구조변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적 냉전체제의 종속변수였던 한반도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내적 변인만으로는 2·28민주운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2·28민주운동의 발생 원인과 정신을 좀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탈냉전적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28민주운동과 탈냉전의 연관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냉전의 형성과 1950년대의 탈냉전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탈냉전에 관한 국내의 반응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2·28민주운동과 탈냉전의 연관성을 파악해볼 것이다.

II. 냉전의 형성과 1950년대의 탈냉전 흐름

1. 냉전의 형성

냉전은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이 상호 경쟁적인 사회체제론을 바탕으로 전개한 대립’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⁵⁾ 구체적으로 냉전은 소련 중심의 국가사회주의를 토대로 한 인민민주주의라는 공산주의 모델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 사이의 체제 경쟁을 의미했다. 양 진영의 대결은 총력전의 양상을 띄고 전개됐다.²⁶⁾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군사적 행동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자원이 총동원됐다. 이로 인해 냉전은 일상생활의 영역에까지 깊게 파고 들었다. 또한, 양 진영 간의 대결은 비타협성을 띄고 전개되어 사회 내부에 적대적 구도를 만들어냈다.²⁷⁾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인식이 정치의 핵심적 내용이었고, 배제와 파괴의 논리가 주류를 이

25) 베르트 슈퇴버, 앞의 책, p.13. 물론, 슈퇴버의 정의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왈츠는 냉전을 일종의 ‘협조체제(concert system)’ 속의 경쟁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협조적 관계가 전면적인 협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무한 경쟁보다는 각자의 세력권이 보장된다면 협조적 관계 형성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Waltz, K.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p.126.). 또 월러스틴은 냉전을 왈츠보다 더 담합적으로 정의했는데, 세계의 2/3를 미국이, 나머지를 소련이 통제하는데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Wallerstein, I., “The world system after 1945”, Eurozine, 2011, <http://www.eurozine.com/articles/2011-04-29-wallerstein-en.html>).

26) 황병주, “탈냉전의 사유와 냉전의 이면: 장세진, 『숨겨진 미래』(푸른역사, 2018)”, 『상허학보』, 55, 상허학회, 2019, p.426.

27) 김득중, “반공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근식 편, 서울: 선인, p.51; 윤해동,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9, 동북아역사재단, p.119.

루었다. 체제 비판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상대 진영을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중도세력조차 용인받지 못했다.

제1차 베를린 위기(1948~49)와 한국전쟁(1950~53)은 냉전 형성을 촉진했다.²⁸⁾ 미국은 1946년 2월의 대소련봉쇄정책과 1947년 3월의 트루만 독트린과 6월의 마셜플랜 등을 통해 자국의 세력권을 강화해 나갔고, 소련도 1947년 9월의 코민포름 창설과 1948년 2월의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 수립 등을 통해 세력권을 강화해 나갔다.²⁹⁾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세력권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베를린 위기와 한국전쟁은 양 진영 내부의 결속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³⁰⁾ 동독 지역에 있던 서베를린의 육로를 봉쇄한 베를린 위기는 미소 양 진영의 방위동맹 결성을 촉진했다. 미국은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발족하고, 나토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소련도 1955년 5월 14일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t, WP)를 설립하고, 동유럽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의 의무를 약속했다. 한국전쟁은 유럽에서의 냉전 형성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냉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1951년~1955년 사이 나토에 견줄 만한 아시아 조직들³¹⁾을 만들었고, 소련도 아시아 지역의 공산국가 특히, 194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했다.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출범 초기에 처한 내외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냉전체제에 적극 가담했다.³²⁾ 국가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질적 자원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정부 수립 직후 벌어진 ‘여순사건’은 남한의 대외적 승인을 기대했던 이승만 정부를 궁지로 몰았다. 또한, 분단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소한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했고,³³⁾ 국회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반(비)이승만세력의 정치공세도 큰 부담이었다.³⁴⁾ 이승만 정부는 스스로를 냉전의 최전선이자 반공의 보루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비판세력을 좌익과 용공으

28) 베른트 슈퇴버, 앞의 책, p.67.

29) Gaddis, J. L., *The Cold War: A New History*, 2007, London: Penguin Books, pp.27-34.

30) 베른트 슈퇴버, 앞의 책, pp.68-77.

31) 이 시기 미국 주도로 아시아에 만들어진 조직은 다음과 같다. 앤저스조약(Anzus-Pakt,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남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바그다드조약기구(Bagdad-Pakt, 미국, 영국,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32) 김봉국, 앞의 논문, pp.278-279.

33) 임종명, “一民主義와 대한민국의 근대민족국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p.270.

34) 임송자, “여순사건과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통해 본 정부와 국회의 갈등·대립”, 『승실사학』, 35, 승실사학회, 2015, p.270.

로 탄압했으며, 반공을 국시로 만들고 각종 관변단체를 동원해 국민을 냉전 반공체제에 얽어맸을 뿐만 아니라, 남한을 “반공규율사회”로 재편해갔다.³⁵⁾ 미소 양 진영의 대리전이자 냉전의 세계적 형성을 촉진했던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더욱 더 강력한 반공 국가체제를 구축해 권력을 독점했고,³⁶⁾ 전쟁을 경험한 일반국민들의 의식도 반공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단순화, 균질화되는 모습을 보였다.³⁷⁾

2. 1950년대의 탈냉전 흐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독립운동에 지도 이념을 제공한 프란츠 파농(Franz Fanon)은 ‘탈식민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탈식민화는 식민지적 상황을 철저히 의문시하는 것”으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극적인 역전 상황, 그리고 “그 문장을 현실로 옮기는” 지난한 독립운동 과정이다.³⁸⁾ 파농의 ‘탈식민화’ 개념을 준용한다면, 탈냉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은 냉전적 상황을 철저히 의문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냉전적 상황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실천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의 탈냉전은 냉전 기간 동안 여러 차례(1953년, 1963년, 1969년, 1972년) 나타났다.³⁹⁾ 본 연구에서는 2·28민주운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해보기 위해 1950년대의 탈냉전적 상황인 미소의 긴장완화와 반동회의에 주목했다.

미소의 세력경쟁 양상에는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⁴⁰⁾ 소련은 1953년을 기점으로 후진국들과 경제협정을 맺고 제3세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점차 강화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경제원조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군사원조 중심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주려고 했다. 특히, 1956년 2월에 개최된 제20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전쟁불가피론을 비판하면서 양 체제의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선포함으로써 미소의 긴장완화를 촉발했다.⁴¹⁾ 그는 사회주의 권의 급속한 성장과 자본주의권의 분열로 ‘호전적’ 자본주의 세력을 제어하고 동서간 평

35)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보수·자유·진보의 개방적 경쟁구도를 위하여』, 1998, 서울: 당대, p.63.

36) 박태균, 앞의 논문, 2002, p.105.

37) 손호철,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 『한국과 국제정치』, 6(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13.

38) 프란츠 파농,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2010, 서울: 그린비, pp.50-51.

39) 베른트 슈퇴버, 앞의 책, p.14.

40) 박홍서, “냉전기 한국의 국가폭력과 미국의 대응: 4·3, 4·19, 5·18을 사례로”, 『통일과 평화』, 8(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63.

41) 베른트 슈퇴버, 앞의 책, p.176.

화적 공존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⁴²⁾ 그의 평화공존론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수소폭탄시대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였다. 미국은 1952년 11월, 소련은 1953년 8월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해 전쟁 방지가 최대 목표로 상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⁴³⁾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도 집권 초기부터 소련을 적대시하기보다는 협력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⁴⁴⁾ 1959년 9월 25일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은 냉전의 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비동맹의 중립 외교노선을 표방하며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휴양도시 반둥에서 개최된 반둥회의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⁴⁵⁾ 애초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합의한 ‘평화 5원칙’⁴⁶⁾의 구상을 확장한 반둥회의에서는 대국들의 압력에 맞서서 독립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신생국들의 확고한 내셔널리즘이 반영된 ‘반둥평화 10원칙’⁴⁷⁾이 제시됐다.⁴⁸⁾ 이른바 평화 10원칙으로 드러난 ‘반둥정신(Bandung Spirit)’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아시아 냉전 구도에 맞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으로 환원되는 양 진영에의 참가 자체를 거부하는 이 정신은 비동맹 국가들 스스로를 세계 평화의 주체로 부각시켰다. 미소 강대국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어진 적대적 공존이 아니라, 비동맹 국가들의 연대의 힘에 기반한 능동적인 평화 공존을 지향했다. 이처럼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평화 공존으로 상징되는 반둥회의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42) Marantz, p., "Prelude to Detente: Doctrinal Change under Khrushchev",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9(4), 1975, p.516.

43) Gaddis, J. L., op. cit., pp.62-72.

44) 로버트 T. 올리버, 박일영 옮김, 『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이승만과 한미관계』, 1990, 서울: 계명사, pp. 496-499.

45) 장세진, 앞의 책, pp.148-149.

46) 1.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2. 상호불가침 3. 내정불간섭 4. 평등과 호혜의 원칙 5. 평화공존 등이다(“평화 5원칙”,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99%94_5%EC%9B%90%EC%B9%99, 검색일: 2023.02.07.).

47) 1. 기본적인 인권과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원칙의 존중 2.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 3.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 4. 내정불간섭 5. 국제연합헌장에 입각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6. 대국 중심의 집단적 군사동맹에의 참가거부 7. 상호불가침 8. 평화적 수단·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 9. 상호이익과 협력의 촉진 10.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 등이다(“평화 10원칙”,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99%94_10%EC%9B%90%EC%B9%99, 검색일: 2023.02.07.).

48) 장세진, 앞의 논문, pp.141-145.

Ⅲ. 1950년대의 탈냉전 흐름과 한국사회

1. 반동회의와 한국사회의 탈냉전 의식

1) 반동회의에 대한 냉전적 사고

한국은 반동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⁴⁹⁾ 반공의 전초기지로 미국 진영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던 한국으로서는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도 비동맹이라는 노선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반동회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반동회의는 “공산진영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무모한 계획”이라고 비난하며, 앞으로도 “공존 사상이나 또는 유화 정책에 지배되는 여하한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했다.⁵⁰⁾ 직전까지 전쟁을 치른 당사국인 중국이 인도와 함께 반동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도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반동회의를 바라보는 한국 언론계의 태도도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상계』는 「움직이는 세계-네루는 성공하였는가?」에서 인도가 추진하는 비동맹 중립노선은 “미국과 중공 사이에 다리를 놓”아 결국은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용공(容共)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를 주도한 네루 수상을 “주은래의 정진(正眞)한 뿌로카”라고 평가절하했다.⁵¹⁾ 또한, 신상초는 『사상계』에 실린 글에서 ‘경제적으로 서방에 의존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중립을 주장하는 아시아 중립론은 성립할 수 없으며, 아시아의 제3세력론은 소련의 평화 공세에 영합하는 이론일 뿐이고, 자유진영에 가담하지 않고는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⁵²⁾ 그리고 『동아일보』는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에서 중국 저우언라이가 주창하는 아시아 슬로건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부르짖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중국판 새버전이라고 힐난했다.⁵³⁾

이처럼 한국의 주류 사회는 철저한 반공 이념에 기초해 공산주의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소련 양 진영에 대한 중립적 태도조차도 용공으로 적대시하는 편협한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

49) 한국 이외에도 북한, 타이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 인종차별주의, 호전성 등의 이유로 초대받지 못했다(Mackie, J. A. C., *Bandung 1955: Non-Alignment and Afro-Asian Solidarity*, 2005,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p.30.).

50) “대(對) 공존(共存)이란 무모-갈실장, 반동회의에 성명”, 『동아일보』, 1955년 4월 25일.

51) “움직이는 세계-네루는 성공하였는가?”, 『사상계』, 1957년 2월호.

52) 신상초, “「아시아적 제3세력론」 비판”, 『사상계』, 1954년 2월호.

53)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동아일보』, 1955년 4월 20일.

2) 반동회의와 한국사회의 탈냉전 의식

반동회의는 식민지 경험을 한 아시아 민족들의 저항적·자주적 민족주의에서 비롯됐다. ‘반동평화 10원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평화 공존이라는 탈냉전 의식이 반동회의의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식민지 상황을 경험한 분단 국가인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반동회의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물론 한국사회의 지나친 냉전 의식 때문에 반동회의의 정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정치적 이유로 그 관련성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동회의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력만큼은 작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인물인 최일수, 조봉암, 이종률의 탈냉전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평론가 최일수는 1950년대 ‘반동적인’ 아시아의 지평을 염두에 두며 동남아시아 민족문학의 가능성에 주목한 인물이다.⁵⁴⁾ 그는 『시와 비평』의 「동남아의 민족문학」에서 “동남아 약소민족들의 문학은 표면에 있어서는 외래문학의 극단적인 모방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치 강력한 민족의식이 내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러한 이율배반의 양상을 띄우고 있다. 원래 이런 현상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지배해 온 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적인 외래 제약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평했다.⁵⁵⁾ 최일수는 동남아시아 약소민족들의 문학 내면에 흐르는 강력한 민족의식을 오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의 역사에서 비롯된 힘으로 해석했다. 그의 이러한 해석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한국도 강력한 민족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 민족이며,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강압으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식의 강렬한 폭발을 기대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주체적 민족의식을 강조한 최일수의 민족주의 문학론은 반동정신과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미국 편향적인 한국사회의 냉전 의식에 충격을 가하는 탈냉전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진보 정치인 죽산 조봉암은 진보당 기관지 『중앙정치』 1957년 10월호에 기고한 「평화통일예의 길」에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⁵⁶⁾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승만 정권의 무력통일론을 “우리나라의 국책처럼 되어 있던 무력적 주장에 의한 남북통일의 수행이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봉암의 주장은 당시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던 국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었다.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있고, 북한도 소련

54) 장세진, 앞의 논문, p.149.

55) 최일수, “동남아의 민족문학”(『시와 비평』, 1956년), 『현실의 문학: 최일수 비평집』, 1976, 서울: 형설출판사, p.81.

56) 조봉암, “평화통일예의 길”(『중앙정치』, 1957년 10월호), 『죽산 조봉암 전집1』, 1999, 서울: 세명서관, pp.424-450.

과 동맹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무력통일은 남북한의 의지로 성사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냉전체제 맹주들의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져 엄청난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반동평화 10원칙’ 가운데 “평화적 수단·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반동정신과 내용적으로 일치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이 반동회의와 연결되는 것을 경계했다.⁵⁷⁾ 공산주의 세력과의 공존이나 평화를 주장하는 중립적인 태도조차도 용공으로 몰아 탄압했던 당시 이승만 정권의 냉전적 통치를 고려하면 조봉암의 경계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그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사형을 당하게 된다. 이처럼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에는 냉전 질서에 옴매여 있던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탈냉전의 의미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민족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은 반동회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은 제3세계 민족주의의 영향도 받았다.⁵⁸⁾ 그는 민족혁명론의 원형이 담긴 『현정치노선비판과 신방향-혁명‘正展開’ Kampf조직의 제소로서』에서 “현순간 우리 인민적 민족대중의 요구하는 독립은 인민적 부르주아민주주의 민족체제(體勢)의 건설이 그의 주생명이기 때문에, 1. 봉건전제세력을 배제해야 한다. 2. 독점자본세력에 항(抗)하며, 3. 인민적 자유기업체제를 조장해야 한다. 4. 그러나 명일(明日)로의 지향은 과학적인 사회주의임을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5. 관념론적 공산주의 소아병 환자를 배격해야 한다. 6. 외압에 항(抗) 철저완전 자주독립이라야 한다. 7.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조직적 세력은 봉건전제자 및 반동적독점자본을 제외한 인민적 전민족조직이다.”라고 주장했다.⁵⁹⁾ 이후 이종률은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1952~1961)로 재직하면서 언론에 여러 글을 기고했는데, 1958년에는 『국제신보』에 ‘백만독자의 정치학’이라는 고정칼럼란을 통해 반동회의를 소개하기도 하고,⁶⁰⁾ 또 나세르의 이집트혁명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게재하기도 했다.⁶¹⁾ 나세르의 이집트혁명 목표 가운데 ‘제국주의 및 그의 앞잡이인 배신

57) 장세진, 앞의 논문, p.151.

58)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민족혁명론’과 ‘민족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역사문제연구』, 15(1), 역사문제연구소, 2011, pp.35-76; 박지영, “냉전(冷戰) 지(知)의 균열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전반 『사상계』 번역 담론을 통해 본 지식 장(場)의 변동”,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 pp.511-551.

59) 1949년 연건출판부에서 출간한 이 저서의 저자는 신호인데, 이 글의 핵심 내용이 훗날 이종률이 주장한 민족혁명론의 ‘3반테제(반봉건, 반매관, 반외세)’와 일치하고, 또 평소 이종률이 여러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신호는 이종률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오제연, 앞의 논문, pp.42-43.).

60) 이일구(이종률의 필명), “[백만독자의 정치학] 반동체제란 이러한 것-싸우며 있는 하나의 국제세력”, 『국제신보』, 1958년 11월 18일.

61) 이일구, “[백만독자의 정치학] 태양과 승리는 우리의 것-눌리던 자 세기의 卍途에서 외치다”, 『국제신보』,

자의 일소'와 이종률의 3반테제 가운데 '반외세'는 반동회의에서 밝힌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냉전을 강요하는 미국과 소련에 맞서 자주권을 요구한 탈냉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2. 미소의 긴장완화와 한국사회의 탈냉전 의식

반동회의뿐만 아니라, 미소의 긴장완화도 한국사회 냉전 의식에 변화를 일으켰다.⁶³⁾ 1950년대 소련의 평화공존론과 제3세계에 대한 경제 지원 강화로 시작된 미소의 긴장완화는 미국의 한국 원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 묶음으로 지원하던 군사원조와 경제개발원조를 분리하고, 무상원조에서 개발차관 중심의 유상원조로 전환하였으며, 원조액도 줄어나갔다.⁶⁴⁾ 이러한 변화는 원조 의존국이었던 한국의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⁶⁵⁾ 미국 중심의 냉전 의식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⁶⁶⁾ 『사상계』에는 핵무기

1958년 11월 27일.

62)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은 4·19혁명기에 큰 주목을 받았다. 4월 혁명의 주역인 학생들의 통일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의 주장이 널리 알려졌다. 3반테제에 기초한 민족혁명론을 언급한 「서울대학교 4·19 제2선언문」을 이종률이 직접 작성했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다(김정강, “4·19 전후 학생·혁신계의 움직임과 현실 인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001, 서울: 선인, pp.45-46.). 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여기서 3, 4월 항쟁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이 땅의 역사사실을 전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봉건 반외압세력 반매관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다. 이 민족혁명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들 젊은 대열은 정비하고 전진한다.”(“서울대학교 학생회 「4·19 제2선언문 및 결의문」 발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workoutlog/workoutlog/view/AAP_1961_04_19_n003, 검색일: 2023.02.14.)

63) 박지영, 앞의 논문, pp.520-521-530.

64) 당시 『사상계』에 실린 글에 따르면, “UNKRA원조액과 미공법 480호에 의한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도입까지 포함하면 외원총계는 57년 3억8천만달러를 정점으로, 58년 3억2천만달러, 59년 2억4천만달러로 감소”했다(이정환, “미국의 外援정책변경과 한국의 경제성장문제”, 『사상계』, 1959년 12월호.).

65) 미국의 원조정책 변화와 이승만 정부의 경제 실패가 중첩되면서 국내의 자금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이로 인해 실업자와 결식아동이 양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윤상현, “1950년대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174.). 특히, 결식아동 문제는 심각했는데, “열악한 영등포구 및 동구의 당산국민학교는 학생수의 93.46%가 결식아동으로 보고되었다.”(“격증일로의 결식아동”, 『경향신문』, 1957년 2월 28일.)

66) 이러한 변화가 대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냉전 의식이 강한 상태였다. 1950~60년대 한국 지식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매체(황병주, 앞의 논문, p.442.)로 평가받는 『사상계』에는 강한 냉전 의식을 드러내는 글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를테면,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합작운동은 “공산주의에 대한 인도주의적 유화(宥和)가 좌익들에게 침투의 온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평가했다(임상섭, “해방10주년 기념논고② 해방10년정치사”, 『사상계』, 1955년 9월호.). 또 단독정부 수립은 “38선 이남만이라도 한국인의 자주정권을 수립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며, “김구의 남북협상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주요한, “우리의 悲願: 해방14년의 風塵”, 『사상계』, 1958년 8월호.). 그리고 3·1운동은 민족이 아닌 자유(=반공)의 차원에서 재해석됐는데, “3·1운동은 거족적인 자유에의 행군이었고 광우 학생 반일 투쟁, 신의주·함흥 학생 반공 투쟁 역시

사용을 둘러싼 냉전적 사고와 이를 비판하는 글이 동시에 실리기도 했다. “인류의 섬멸에 이 끌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시드니 후크의 냉전적 주장을 비판하는 버틀랜드 러셀의 “공산주의자의 승리는 모든 인간생명의 전멸과 비교할 때 보다 적은 악일 것”이라는 견해가 실렸다.⁶⁷⁾ 또 의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 가능성을 제기한 사회민주주의자 양호민의 글이 『사상계』에 소개되기도 했다.⁶⁸⁾ 그리고 함석헌과 이동화는 당시 냉전 의식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부각되는데 아래에서는 이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함석헌은 1950~60년대 『사상계』의 간판 필자였지만, 그의 사유방식이나 세계관은 『사상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이나 독특했다. 즉, 냉전 의식에 얽매이지 않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미국과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국사회에 만연했던 소비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의 잘못으로 나온 것이다. ... 아 미국 때문에 생긴 우리 썩음 아닌가? 미국 자본주의의 하수도가 우리다.”라며 실랄하게 비판했고,⁶⁹⁾ 교육의 상업화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상품을 만드는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인격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⁷⁰⁾ 그리고 그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체로 규정한 글에서도 탈냉전적 태도를 드러냈다. “나는 아무것도 못되는 사람이다. 그저 사람이다. 민중이다. 민은 민초라니 풀 같은 것이다. 나는 풀이다. ... 동양에도 있는 풀, 서양에도 있는 풀, ... 어디서나 언제나 다름없는 한 빛깔인 푸른 풀.”⁷¹⁾ 이처럼 그는 영토나 진영 논리로 사람을 분리해 서로 싸우게 하는 냉전 의식을 거부했다. 이러한 그의 탈냉전적 사고는 1958년 필화 사건으로 번졌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다. 『사상계』에 실린 그의 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가 한국사회의 냉전 의식과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의 직접 원인은 38선을 그어놓은 미국과 소련에 있으며,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 주장은 선거용 구

자유에의 진격이었다. 6·25 적위 남침의 격과도 자유에의 진일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67) “시드니 후크 對 버틀랜드 러셀의 논쟁-최후의 결정”, 『사상계』, 1958년 10월호.

68) 양호민, “사회주의이론의 세대적 고찰: 맑스주의, 수정주의, 영국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사상계』, 1960년 2월호.

69) 함석헌,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사상과 실천: 사회에 강건한 기풍이 서야만 멸망에서 생을 보존할 수 있다”, 『사상계』, 1956년 12월호.

70) 함석헌, “새윤리(상)”, 『사상계』, 1956년 4월호. 더 나아가 함석헌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수단으로 간주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요 공산주의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표면의 소리요, 문제는 깊은 데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말은 정말 근본적인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말이지, 문제가 정치적·경제적인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인간의 본질, 존재의 성격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이념이 거기까지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함석헌, “새교육”, 『함석헌 전집2』, 1997, 서울: 한길사, pp.421-422.)

71) 함석헌, “할 말이 있다”, 『사상계』, 1957년 3월호.

호일 뿐이고, 반공주의는 정적(政敵) 제거용 빨갱이 놀음이라고 힐난한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⁷²⁾

6·25 싸움의 직접 원인은 38선을 그어놓은 데 있다. 둘째 번 세계전쟁을 마치려 하면서 룩키산의 독수리와 북빙양의 곰이 그 미끼를 나누려 할 때 서로 물고 당기다가 할 수 없이 찢어진 금이 이 파리한 염소 같은 우리나라의 허리동강이인 38선이다. 피가 하나요, 조상이 하나요, 말이 하나요, 풍속·도덕이 하나요, 이날껏 역사가 하나요, 이해 운명이 한 가지인 우리로서는 갈라질 아무 터무니도 없다. 이 싸움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다. (중략)

우리가 일본에서는 해방이 됐다 할 수 있으나 참 해방은 조금도 된 것 없다. 도리어 전보다 더 참혹한 것은 전에 상전이 하나였던 대신 지금은 둘 셋이다. 일본시대에는 종살이라도 부모 형제가 한 집에 살 수 있고 동포가 서로 교통할 수는 있지 않았나? 지금 그것도 못해 부모 처자가 남북으로 헤어져 해매는 나라가 자유는 무슨 자유, 해방은 무슨 해방인가?

남한은 북한을 소련·중공의 꼭두각시라 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하니 남이 볼 때 있는 것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6·25는 꼭두각시의 놀음이었다. 민중의 시대에 민중이 살았어야 할 터인데 민중이 죽었으니 남의 꼭두각시밖에 될 것 없지 않은가? (중략)

그리고 선거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내놓고 사고팔고 억지로 하고, 내세우는 것은 북진통일의 구호뿐이요, 내 비위에 거슬리면 빨갱이니, 통일하는 것은 칼밖에 모르나? 같은 있기는 있나?

이동화는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⁷³⁾ 한국에서의 민주사회주의 발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노동당의 성공에 영향을 받았다.⁷⁴⁾ 이동화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노동당의 집권으로 복지국가가 된 영국에 고무됐고, 특히 경제문제에서 영국 노

72)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6·25 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사상계』, 1958년 8월호.

73) 이동화는 가명 또는 필명으로 이두산을 사용했는데,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할 때는 대체로 이두산을 사용했다. 한국전쟁 중 월남한 이동화는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거쳐 한국내외문제연구소 소장, 국방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나연준, “이동화의 민주사회주의와 시민적 근대성”, 『한국 근현대사 연구』, 9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p.201.). 그리고 이동화 이외에도 민병태, 김철, 신도성 등도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했다. 민병태는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성을 정치적 자유의 전제로 보며 이러한 평등의 보장이 정치적 자유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민병태, “정치적 자유”, 『사상계』, 1958년 12월호.). 김철은 “수정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까지 이르는 광범한 세력을 규합”할 것을 제안했고, “통일한국의 영세중립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김철, “한국혁신운동의 입장”, 『신태양』, 1958년 9월호.). 신도성은 민주사회주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자본의 독점을 야기하고, 자유방임에 따른 공동체의 분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신도성, “총비판-민주당”, 『사상계』, 1956년 2월호.).

74) 박지영, 앞의 논문, p.538.

동당은 “자유방임주의와 불세비즘·과시증적 독재적 방식을 거부”하고 “참다운 자유를 위하여 계획화”를 실천하면서 ‘반(半)사회주의적 복지국가’를 건설했다고 호평했다.⁷⁵⁾ 양극단을 지양했던 이동화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다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⁷⁶⁾ 1955년 5월 ‘소련 외교정책의 해부와 비판’이란 제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원자폭탄으로 전쟁이 불가능해졌다며 두 진영 사이의 평화공존을 예상했던 것이 빌미가 됐다. 이처럼 냉전체제의 전환을 예상했던 그는 평화공존론을 공표한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1956년 2월 개최)에 주목했고,⁷⁷⁾ 유고슬로비아를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수정주의 노선을 통해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세계 중립지역의 큰 확대”라는 냉전체제의 전환을 기대하기도 했다.⁷⁸⁾ 그리고 이동화가 기초를 잡았다고 알려진 진보당 강령에도 그의 중립적 태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⁷⁹⁾ 진보당 강령은 소비에트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도 매우 비판적이다.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무자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해 국가권력은 절대화하고 인간의 개성과 자유는 억압한다고 비난했고, 자본주의는 대중적 수탈과 생산의 무계획성으로 대중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경제공황이 주기적으로 닥치며 실업자 양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동화의 중립적 태도는 4·19혁명 이후 전개된 통일운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영세중립화된 통일국가를 주장하며 1961년 2월 ‘중립화통일총연맹 발기주비위원회(중통련)’를 구성했는데,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경제 발전을 제기했고, 급진적 통일운동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보수화를 경계하는 독특한 입장을 견지했다.⁸⁰⁾

IV. 2·28민주운동과 탈냉전의 흔적

2·28민주운동에는 탈냉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⁸¹⁾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고등

75) 이동화, “서구의 사회주의는 어디로②-영국노동당의 공과”, 『새벽』, 1960년 2월호; 나연준, 앞의 논문, p.206, 재인용.

76) 나연준, 위의 논문, pp.201-202.

77) 김학준, 『두산 이동화 평전』, 2012,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pp.272-280.

78) 이두산(이동화의 필명), “(속) 인민민주주의를 비판한다”, 『사상계』, 1957년 8월호.

79) 나연준, 앞의 논문, pp.203-204.

80) 위의 논문, pp.214-215.

81) 본 연구에서 2·28민주운동의 탈냉전 흔적을 찾기 위해 이용한 자료는 4월 혁명기에 발행된 교우지와 신문 기사이다. 교우지는 경북고의 『경맥』(7호), 대구고의 『달구』(1호), 경대사대부고의 『군성』(8호), 대구상

학생들의 인식 저변에는 탈냉전의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한국을 미국 진영의 침범이자 보루로 만들었다. 국내 통치에서도 냉전질서의 연장으로 구축한 강압적인 반공체제를 악용했다. 이승만 자신이 자유진영과 반공을 수호하는 화신이 됐다. 이제 이승만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를 비판하는 것이며, 공산진영을 찬양하는 것이 됐다. 그는 냉전의 장막으로 자신의 권력을 에워쌌다. 따라서 이승만 독재정권에 반발했던 고등학생들에게는 냉전질서에 비판적인 의식이 싹틀 수밖에 없었다. 특히, 반동회의나 미소의 긴장완화와 같은 냉전질서의 변화 흐름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고등학생들의 의식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⁸²⁾ 이처럼 탈냉전 의식이 싹튼 고등학생들과 냉전질서를 맹신했던 이승만의 통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다.⁸³⁾ 이번 장에서는 2·28민주운동 발생과 관련이 있는 고등학생들의 탈냉전 의식을 미국, 북한과 남북통일, 한국전쟁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냉전논리에 갇혀 있다면, 자유진영의 중심 국가인 미국을 비판하기 어렵다. 그런데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글과 행동에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담겨있다. 탈냉전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진순출(고2)은 자신의 소설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는 주인공 충구의 시선을 통해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⁸⁴⁾ 미군 막사에서 강도짓을 하는 충구의 위협에 놀라 죽은 듯이 있는 미군 병

고의 『상흔』(7호)이다. 이들 교우지는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당시 학생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나머지 4개 학교(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의 당시 교우지는 남아 있지 않아 참고하지 못했다.

82)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2020년 7월~12월 사이 2·28민주운동에 참여했던 58명(경북고 12명, 경북여고 5명, 대구고 9명, 대구여고 5명, 사대부고 8명, 대구상고 7명, 대구공고 8명, 대구농고 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의 정보 취득에 신문과 잡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가운데서도 『동아일보』와 『사상계』를 통해 국제정세나 국내정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1960년 2·28민주운동 전후 대구지역 고등학생 생활문화 아카이브 1: 기록/구술자료 및 분석』, 2021,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pp.11-14.). 이처럼 당시 고등학생들은 2·28민주운동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탈냉전적 국제정세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3) 월츠는 이러한 변인을 ‘허용적 원인(permissive cause)’, 즉 현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발생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정의했다(Waltz, K.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200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p.231-233). 국제정치 연구자였던 그에 따르면, 개별 국가들은 자유의지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은 타국가들과의 세력 격차라는 허용적 원인에 따라 제약될 수밖에 없다. 2·28민주운동과 탈냉전의 연관성을 찾는 본 연구도 2·28민주운동의 허용적 원인으로 고등학생들의 탈냉전 의식을 탐구하고 있다.

84) 진순출, “이정(里程)없는 회념(廻念)”, 『달구』, 1960, p.192.

사를 향해 “저 꼬라질 하구서 이국만리에 와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다고? 몇 년을 못본 자기 아내는 누구와 계집질을 하는지 알게 뭐냐? 그리구 전 또 비린내 나는 깔보를 끼구 그래도 좋다고 해벌떡 그리고”라며 매우 모욕적으로 묘사했다. 또한, 변세화(고2)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의 삶을 다룬 자신의 소설에서 미군 비행기의 사격으로 전우가 전사한 “지상 최대의 비극”을 회상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했다.⁸⁵⁾ “진탕 위에 그저 쓰러져 있었지? 철이, 그렇지, 그러던 얼마 후, 우리는 비행기 소릴 들었지, 아, 아, 아군의 비행기였지, 그러나 ... 비행기는 우리를 직선으로 마구 쏘았지, 운명 앞에 무릎 꿇은 우리에게 말이야, 철이, 피할 사이도 없이 넘어진 벼들도 있지만 그나마 우리는 묘 같은 골이라도 찾아 들었는데 아, 철이! 내 위에 덮쳐 들어온 철이는, 언제 저승으로 갔던가?” 소설에서는 아군의 비행기로 묘사됐지만, 한국전쟁 당시 전투 비행은 거의 유엔군(미군)이 했던 것으로 보아 미군의 잘못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묘사는 특히 한국전쟁에서의 미군의 군사행동을 비판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강한 탈냉전 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남북분단의 책임을 논할 때 미국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냉전논리에 따르면, 남북분단은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소련의 흥계였다. 그러나 박재철(고3)은 “세계의 대세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 하였건만 숨돌릴 겨를도 없이 백의민족을 겨냥 한복판에 잘라버린 소련, 미국이 알뜰기만 하다.”라고 했고,⁸⁶⁾ 이복수(고3)는 “38선은 ... 사실상 미국 국방성에서 소련이 완전히 전 한반도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로 제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⁸⁷⁾ 또 2·28민주운동 1주년 기념식 선언문에서도 “양대진영의 냉전의 희생물로 제공된 민족분단의 비극”이라고 밝혔고, UN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도 “강대국의 희생물이 된 우리조국”이라는 내용을 담아 미국도 남북분단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⁸⁸⁾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은 남북분단의 책임이 미국과 소련에 있다고 주장했던 함석헌의 탈냉전 인식에서 그 맥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미국과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우교종(고3)은 “미국으로부터의 원면 수입으로 국내 면화 생산은 서리를 맞아 방직공업의 사활”이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은 곡가를 생산비 이하로 저락시키어 농

85) 변세화, “비에 젖은 래프서티”, 『군성』, 1961, p.203.

86) 박재철, “역사의 전환점: 2·28을 중심으로”, 『군성』, 1961, p.103.

87) 이복수, “통일방안론 시비: 각 주장을 중심으로”, 『군성』, 1961, p.27.

88) “한돌만에 다시터진 노도(怒濤)같은 외침 2·28기념학생대회”, 『매일신문』, 1961년 3월 1일.

존경제를 과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비판했다.⁸⁹⁾ 이성희(고3)도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진실로 중농정책을 쓴다면 시급히 이것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⁹⁰⁾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4월 혁명기에 추진됐던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⁹¹⁾ 협정의 내용이 불평등하고 내정간섭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⁹²⁾ 또 2·28민주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도 “한국을 반(半)식민지화하려는 굴욕적인 한미경제협정을 결사반대”한다고 결의했으며, 케네디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우리들 대한학도는 일시적 수혜가 영구적 노예로 떨어지기보단 일시적 고난의 인내가 영구한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낳게 함을 택할 것이오며 귀국의 대한정책이 보다 건설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⁹³⁾ 이러한 학생들의 자주적인 태도는 반동회의의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에서 밝힌 ‘반외세’ 주장으로부터 그 맥이 이어져온 탈냉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과 남북통일에 관한 민족적·평화적 시각

냉전논리 안에서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기 어렵다. 박멸해야 할 적으로 인식할 뿐이다.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야 북한을 우리와 동일한 민족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남북통일에 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탈냉전적 의식이 존재할 때 북한을 통일의 한 주체로

89) 우교중,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논함”, 『상훈』, 1960, pp.33-34.

90) 이성희, “농촌의 실태와 농정에 관한 분석”, 『달구』, 1960, p.68.

91) 김일수, “2·28민주운동의 인식변화와 4·19혁명으로의 계승”,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b, p.973.

92)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경제기술 및 이에 관련된 원조가 국제연합의 제(諸)목적 및 원칙에 따라 한국의 방위를 유지하는 지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공동으로 재확인한다. ② 원조는 한국정부가 요청하고 미국정부가 지명한 기관의 대표가 승인할 경우와 양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된 기타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고 승인될 경우에 제공되며, 모든 원조 제공은 미국의 관계법령과 규칙에 따를 것이다. ③ 한국정부는 원조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구매는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정부와 협조하며, 미국 대표가 본 협정에 의한 계획, 사업 및 이에 관한 기록을 제약없이 계속 시찰하고 검토함을 허용하며, 미국정부가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미 제공되거나 구상 중인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미국정부에 제공한다. ④ 미국원조사절단의 활동에 최대한의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원조사절단과 그 구성원은 미국 외교사절의 일부로 간주하여 경제적·정치적 외교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⑤ 미국의 원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도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물자에 대해 한국정부는 내국세와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 ⑥ 이 협정에 규정된 원조계획은 미국정부가 원조의 계속 필요하지 않거나 희망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 미국정부에 의해서 종료된다.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390>, 검색일: 2023.03.01.)

93) “기리뵈나리 2·28의 정신”, 『영남일보』, 1961년 3월 1일; 『매일신문』, 앞의 글.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과 남북통일에 관한 민족적·평화적 시각을 드러냈던 2·28민주운동 참여 고등학생들은 냉전논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반동회의와 그 영향을 받은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에서 제기하는 강한 민족주의적 시각과 이동화가 주장한 민주사회주의에서 강조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평화주의적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극두(고2)는 남북 인사교류에 대해 소련과 중공의 지령하에 움직이는 북한 괴뢰집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시각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을 바라는 마음, 곧 민족주의적 생각”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또 남북 교역에 대해서도 당장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질시하는 반목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소멸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⁴⁾ 북한을 박멸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천길(고2)은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자신의 소설에서 부상을 당한 한국군이 그 책임 소재를 따져보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북한군에 대한 민족주의적 시각을 드러냈다.⁹⁵⁾ “나를 이렇게 만든 이는? 탄환이 나를 이렇게? 아니다. 인민 군인이 나를 이렇게 하였겠지?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인민 군인도 내 혈액의 연쇄자이니 나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필연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같은 민족끼리 상대를 적대시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장은 서로에게 총질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서로를 해칠 이유가 없는 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진홍(고3)은 학생들이 더욱 분발하여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통일은 “민주주의가 어떻든 공산주의가 어떻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애국 애족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⁹⁶⁾ 또한, 이복수(고3)는 남북의 적대의식을 민족의식으로 전환해 “모두가 관용과 양보, 상호이해”에 기반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통일 문제를 다룰 때는 일반 정치 문제를 다룰 때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⁹⁷⁾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하여 위협시하고 흥계니 책략이니 하여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현명한 짓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이라도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여 정당하다면 취사선택하는 정도의 관용성

94) 장극두, “통일방안: 나의 관점”, 『군성』, 1961, pp.35-36.

95) 구천길, “젊은 산맥”, 『군성』, 1961, p.212.

96) 손진홍, “창조의 3년을 더듬으며”, 『달구』, 1960, p.62.

97) 이복수, 앞의 글, p.27.

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처럼 냉전의 상대편 진영에 속한 북한을 통일 논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민족주의와 관용성에 입각한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냉전 인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의식은 4월 혁명기에 통일운동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2·28 민주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3천만 겨레의 염원인 배달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기필코 성취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⁹⁸⁾ 또 경북고등학교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통일운동 조직을 결성했다.⁹⁹⁾ 1961년 4월 21일 결성된 경북고 민족통일연구회 결성준비위원회에서는 “통일과 보다 잘 살 수 있는 정치에의 국민 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현 기성정치인들은 사리사욕에만 치우쳐 정치적 부패와 부정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① 자주성에 입각한 남북통일, ② 학생의 시대적 각성, ③ 사회악의 개혁”을 선언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1961년 5월 10일 개최되는 남북학생회담지지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지역 2개 고등학교 학생대표 10명이 3개 대학교 학생대표 15명과 함께 상경했다.¹⁰⁰⁾ 대구지역에서도 같은 날 남북학생회담지지대회가 만경관(영화관) 앞 도로와 수성천변에서 열려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후에도 경북고와 영남고 민통련계 학생들은 대학생들과 함께 5월 13일과 15일에 남북학생회담지지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¹⁰¹⁾

이 외에도 이동화 등이 주장한 민주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남북통일의 대안을 모색한 학생들도 있었다. 대구대학교 정치학회에서 주최한 제5회 통일방안 학생토론회가 1960년 10월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 특등상을 받은 경북고 김정호는 “이북의 공산주의도 이남의 자본주의도 그 어느 하나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진실된 배달겨레의 사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통일의 이념이 배달 전체가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 일컬어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세계 이익과 냉전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믿거니와 이 길이 민족자결을 고조하고 민족 자주정신을 확립하는 길임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극복한 고차원의 민주사회주의가 그 대표적 사상이라고 주장했다.¹⁰²⁾ 같은 대회에서 3등상을 받은 협성상고 김문구는 “혹자는 말하기를 남한대 북한이라는 대등적 관념이 상대라는 생각을 갖는 것조차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생각이라고 아예 반역자적 해석을 하려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욕적이고 마음으로 부인하고픈

98) 『영남일보』, 앞의 글.

99) “기성세대에 警告 高교생들도 統韓축진에 한몫 민족통일경고준비위를 결성”, 『영남일보』, 1961년 4월 22일.

100) “남북학생교류 데모와 대회로 지지”, 『영남일보』, 1961년 5월 10일.

101) “대구공기 또 다시 험악”, 『경향신문』, 1961년 5월 10일.

102) “邱大 정치학회 주최 제5회 학생토론회 특등 김문구 경북고등 통일이 가능한 정치노선은 민주사회주의적 노선이다”, 『영남일보』, 1960년 10월 20일.

것일지라도 있는 것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을 통일의 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민주사회주의 정치노선은 극단적 전체를 배격하고 양자의 장점을 선택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¹⁰³⁾

3. 한국전쟁에 관한 인도주의적 관점

한국전쟁은 냉전체제 형성을 촉진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독재 정권의 반공체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한 체험적 근거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냉전적 인식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중공과 소련의 조정을 받은 북한의 괴뢰집단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해 일으킨 도발 행위를 남한이 유엔군(미군)과 함께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를 수호한 전쟁이다. 그래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남한 내부의 부정적인 인식은 금기시됐고, 심지어 전쟁의 비극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마저도 불순한 의도로 매도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무기 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탈냉전 의식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었다. 김유조(고3)는 한국전쟁을 죽음과 상실로 묘사했다.¹⁰⁴⁾ 그의 글에서 휴전 전날 배치된 신병들을 바라보는 주인공은 “은누리는 죽음으로 충만했다.”라고 했고,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읊조렸다. 또 변세화(고2)는 자신의 글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선에 내리던 비를 “장송곡”에 비유했고, 대포소리를 “마약처럼 죽음을 마시고 싶도록 체념적 인간 심리를 자아내어 그야말로 자기를 상실토록 만드는 것”이라고 묘사했으며, 그 외에도 “아비규환의 지옥의 전선 ... 죽음의 지옥 ... 종족 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¹⁰⁵⁾ 그 어디에도 자유진영을 수호한 냉전의 용사는 찾아볼 수 없고, 전쟁의 참화에 아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만 보일 뿐이다.

또한, 변세화(고2)는 자신의 글에서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퇴역 군인의 참혹한 삶의 모습(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다음과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했다.¹⁰⁶⁾ “목발을 짚고 걷는 그 ... 연신 장송곡이 웨딩마치처럼 울려 나오던 <전선의 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식은땀이 온몸을 간지럽다. 방금 맹수에게 쫓긴 것처럼 그는 무서운 눈을 하였다. ... 어찌면 그날, 실로 그날, 철이의, 마지막 젓어 들든 아, 그 피의 마지막 체운을 느끼는

103) “邱大 정치학회 주최 제5회 학생토론회 3등 김문구 협성상고 이념조정이 중요한 과제 왜국적 杞憂主義를 단호 배격”, 『영남일보』, 1960년 10월 23일.

104) 김유조, “응류(凝流)”, 『군성』, 1961, p.194.

105) 변세화, 앞의 글, pp.199-205.

106) 위의 글, pp.198-204.

지도 모른다. 그는 급기야는 흠어진 물건들을 더 흠어버린다. 더욱 착잡하게 밀려드는 모진 사상의 지배 속에 추억이란 액체가 꾸무럭거려 그가 다시 발작을 일으킬 위험한 순간 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그대로 그 쓰레기 같은 물질들 위에 앉으려지고 말았다. 누구의 애타는 유언을 더듬듯이, 또는 철이의 마지막 피의 체온을 느끼듯이 ... 흠, 흠, 아-철아, 철아, 철이 왜 대답이 없어, 이 피 사람의 피가 아닌가 아 철아 철아. 그는 방바닥을 마구 친다. 그의 극한 비애 속에는 집 하나쯤은 무너져도 족하지가 않았을지언정 온방안이 눈물 속에 젖어나도 그의 <서러움에 대한 욕망>은 메꿀 길이 없다. 우-우-으-으-호-흠 철이-이-이- ... 아, 철이, 철이- 광광- 그는 방을 사정없이 두들기고 흡사 미친 사람 모양으로 흠어진 물질들을 되는데로 찢고 헤치고 한다. 철이의 환영이 떠오른 모양이다. 꼭 죽고 싶은 심정인 모양이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의 반공산주의적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데, 냉전 의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삼환(고2)은 지금도 다루기 쉽지 않은 한국전쟁의 부역자 처벌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¹⁰⁷⁾ 한국전쟁 중에 “낮에는 지서에서 오고, 밤에는 산에서 그놈들이 내려오니 중간에 들볶여” 농민위원회 부회장을 잠시 동안 강제로 떠맡은 윤 씨는 빨갱이로 몰려 이웃 동네에서 숨어지낸다. 경찰인지 군인이지도 모를 너댓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쳐 노모와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심지어 어린 아들까지 피투성이로 만들어 결국 윤 씨를 찾아낸다. 집은 불타고 온 가족이 산골짜기로 끌려와 재판도 없이 처형되는 이들의 모습을 안삼환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산골짜기에 끌려 온 그들 전가족은 멀리서 불타고 있는 자기집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 끌려온 사람은 경이(윤 씨의 어린 아들)네뿐만 아니었다. 수많은 흰옷겨레가 「」산골짜기에 끌려와서 울부짖으며 메아리를 울렸다. ... 노소의 산골 부녀자들의 절규 속에 인류사상 다시 없을 학살은 시작되었다. 소름이 끼치는 붉은 불줄기와 탕하는 총소리...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틈바구니에 끼어 억울하게 쓰러지며 비명을 지르는 흰옷겨레!” 전선이 남북으로 크게 움직인 한국전쟁에서 부역자라는 인식은 그 자체로 냉전 의식의 산물일 뿐이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부채 의식은 고사하고 민간인을 부역자로 몰아 재판도 없이 처형한 행위는,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않는 그저 박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끔찍한 냉전 논리로밖에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인류사상 다시 없을 학살”로 표현한 것은 강한 탈냉전 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107) 안삼환, “학살”, 『경맥』, 1960, pp.210-213.

한편, 구천길(고2)은 자신의 글에서 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시각을 드러냈다.¹⁰⁸⁾ 한국전쟁에 참전한 주인공 철이는 총을 버려버리는데, 이를 두고 다른 전우와 언쟁을 하는 장면에서 전쟁 이전에 무기 그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정의”라고 주장한다. 적을 섬멸해야 하는 냉전체제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화주의적인 탈냉전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두 전우의 언쟁하는 장면이다.

“총은 역적이야!” 독백이라도 하듯 철은 내킨다.

“그건 무슨 소린가?”

“.....”

“자넨 총이 없구나, 그래서 총을 버렸단 말인가?”

“물론이지”

“반역자!”

“반역자라고?”

“그건 확실한 반역자야!”

“아니, 나는 다만 부정이란 너울 속에서 정의를 돌발시켰을 뿐일세.”

“그럼, 자넨 그것이 옳단 말인가?”

“물론이지 그것은 나와 자네를 위하여 아니 젊은이를 위하여 였지!”

“이해 못할 그런 녀두린 그만 두게.”

“아닐세, 자네가 쓴 총에 반발적으로 나의 총알이 불발(發射)되었다면 절망 속에서 얻은 자넨 잃어버리게 할 그런 역적의 놈이 어디 있어!”

“.....”

“뿐인가, 이미 그(銃)는 술한 젊은이의 생명을 산재(散在)한 채 늠늠히 또 젊은이를 삼키려 하지 아니한가?”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28민주운동 발생의 국제적 변인을 파악해보았다. 국제적 냉전체제의 종속변수였던 한반도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1950년대에 나타난 탈냉전적 흐름과 2·28민주운동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운동 직후 발행한 교우지와 4월 혁명기에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2·28민주운동에 드리워진 탈냉전의 흔적을 규명하고자 했다.

108) 구천길, 앞의 글, pp.210-211.

반동회의와 미소의 긴장완화로 촉발된 1950년대의 탈냉전 흐름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탈냉전 의식이 싹튼 고등학생들과 냉전질서를 악용해 자신의 부당한 권력을 비호했던 이승만 독재정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다.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의식에 깃들었던 탈냉전 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학생들이 냉전논리에 갇혀 있었다면, 자유진영의 중심 국가인 미국을 비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탈냉전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그리고 한미경제협정과 관련해 미국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전쟁 이후 주둔하고 있던 미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은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소련의 흥계라는 남북분단에 관한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나, 미국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4월 혁명기에 추진됐던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고 내정간섭적 협정이라며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학생들은 2·28민주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을 반(半)식민지화하려는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둘째,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북한과 남북통일에 관해 민족적이고 평화적인 시각을 간직하고 있었다. 냉전논리 안에서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박멸해야 할 적으로 인식할 뿐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북한을 우리와 동일한 민족으로 인식했고, 평화적 통일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한 교역과 인사교류에 대해 동족을 질시하고 반목하는 태도를 극복하고 민족의 단결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북한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해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민족인 남북은 관용과 양보와 상호이해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4월 혁명기에 통일운동으로 표출됐다. 학생들은 2·28민주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평화적 통일을 기필코 쟁취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통일운동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

셋째,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한국전쟁에 관해 인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냉전체제 형성을 촉진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독재정권의 반공체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한 체험적 근거였다. 따라서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전쟁은 중공과 소련의 조정을 받은 북한의 괴뢰집단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해 일으킨 도발 행위를 남한이 유엔군(미군)과 함께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를 수호한 전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남한

내부의 부정적인 인식은 금기시됐고, 심지어 전쟁의 비극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마저도 불순한 의도로 매도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전쟁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무기 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탈냉전 의식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학생들은 한국전쟁을 자유수호보다는 죽음과 상실과 지옥으로 묘사했으며, 퇴역 군인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상세히 표현했다. 그 어디에도 자유진영을 수호한 냉전의 용사는 찾아볼 수 없고, 전쟁의 참화에 아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만 보일 뿐이다. 또한,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비인도주의적 악행으로 알려진 부역자 처벌에 대해 “인류사상 다시 없을 학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무기 사용 그 자체를 부정하는 지극히 탈냉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2·28민주운동 발생의 국제적 변인을 1950년대에 나타난 탈냉전 흐름에서 찾음으로써 그동안 국내적 변인에 국한되었던 2·28민주운동의 발생 원인을 더 폭넓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본 연구에서 밝히 2·28민주운동의 탈냉전 흔적 즉,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북한과 남북통일에 관한 민족적이고 평화적인 시각, 한국전쟁에 관한 인도주의적인 관점은 냉전질서에 철저히 의존했던 이승만 독재정권의 미국에 대한 맹신적인 태도, 북한과 남북통일에 관한 반민족적이고 비평화적인 시각, 한국전쟁에 관한 반인도주의적인 관점과 충돌하면서 2·28민주운동 발생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향후 2·28민주운동의 발생 원인에 관한 더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1960년 2·28민주운동 전후 대구지역 고등학생 생활문화 아카이브 1: 기록/구술자료 및 분석』, 2021,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2·28민주운동기념사업60년편찬위원회, 『2·28민주운동기념사업60년 제1권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사업회 활동』, 2021,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구천길, “젊은 산맥”, 『군성』, 1961, pp.206-214.
- 김득중, “반공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근식 편, 서울: 선인, pp.37-82.
-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자유민주주의론과 냉전담론의 확산”, 『한국사학보』, 66, 고려사학회, 2017, pp.277-327.
- 김유조, “응류(凝流)”, 『군성』, 1961, pp.190-197.
- 김일수,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본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지향”, 『대구경북연구』, 20(2), 대구경북연구원, 2021a, pp.111-131.
- 김일수, “2·28민주운동의 인식변화와 4·19혁명으로의 계승”,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

- 연구소, 2021b, pp.951-990.
- 김정강, “4·19 전후 학생·혁신계의 움직임과 현실인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001, 서울: 선인, pp.41-48.
- 김진흠, “1958년 5·2총선 연구: 부정 선거를 중심으로”, 『사림』, 44, 수선사학회, 2013, pp.277-322.
- 김철, “한국혁신운동의 입장”, 『신태양』, 1958년 9월호, pp.172-183.
- 김태일, “4월 혁명의 출발: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pp.239-260.
- 김학준, 『두산 이동화 평전』, 2012,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 나연준, “이동화의 민주사회주의와 시민적 근대성”, 『한국 근현대사 연구』, 9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pp.187-224.
- 로버트 T. 올리버, 박일영 옮김, 『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이승만과 한미관계』, 1990, 서울: 계명사.
- 민병태, “정치적 자유”, 『사상계』, 1958년 12월호, pp.64-69.
- 박재철, “역사의 전환점: 2·28을 중심으로”, 『군성』, 1961, pp.103-107.
- 박지영, “냉전(冷戰) 지(知)의 균열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전반 『사상계』 번역 담론을 통해 본 지식 장(場)의 변동”,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 pp.511-551.
- 박태균, “냉전체제와 한국 정치: 1950년대 자유당과 진보당”, 『세계정치』, 24(1),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2, pp.82-113.
- 박태균, “1960년대 초 미국의 후진국 정책 변화: 후진국 사회변화의 필요성”, 『미국사연구』, 20, 한국미국사학회, 2004, pp.167-192.
- 박홍서, “냉전기 한국의 국가폭력과 미국의 대응: 4·3, 4·19, 5·18을 사례로”, 『통일과 평화』, 8(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p.45-78.
- 베르트 슈퇴버, 최승완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2008, 서울: 역사비평사.
- 변세화, “비에 젖은 래프서티”, 『군성』, 1961, pp.198-205.
- 손진홍, “창조의 3년을 더듬으며”, 『달구』, 1960, pp.61-62.
- 손호철,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 『한국과 국제정치』, 6(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1-27.
- 신도성, “총비판-민주당”, 『사상계』, 1956년 2월호, pp.301-316.
- 신상초, “『아시아적 제3세력론』 비판”, 『사상계』, 1954년 2월호, pp.43-52.
- 심재택, “4월 혁명의 전개과정”, 『4·19혁명론』, 한완상·이우재·심재택 외 지음, 1983, 서울: 일월서각, pp.11-68.
- 안도현·변영학,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 연구: 2·28민주운동 직후 발행된 교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1(3), 대구경북연구원, 2022, pp.1-29.
- 안삼환, “학살”, 『경맥』, 1960, pp.209-216.
- 양호민, “사회주의이론의 세대적 고찰: 맑스주의, 수정주의, 영국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사상계』, 1960년 2월호, pp.38-53.
- 엄상섭, “해방10주년 기념논고② 해방10년정치사”, 『사상계』, 1955년 9월호, pp.197-212.
-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민족혁명론’과 ‘민족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역사문제연구』, 15(1), 역사문제연구소, 2011, pp.35-76.
- 우교중,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논함”, 『상훈』, 1960, pp.30-34.

- 유명철, “1950년대 전국 제1의 야당 도시는 대구(大邱)다”, 『국제정치연구』, 20(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7, pp.23-54.
- 유명철,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 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57(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8, pp.37-72.
- 윤상현, “1950년대 지식인들의 민족 담론 연구”,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순갑, “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대한정치학회보』, 26(4), 대한정치학회, 2018, pp.155-176.
- 윤해동,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9, 동북아역사재단, pp.106-149.
- 이두산(이동화의 필명), “(속) 인민민주주의를 비판한다”, 『사상계』, 1957년 8월호, pp.83-88.
- 이복수, “통일방안론 시비: 각 주장을 중심으로”, 『군성』, 1961, pp.26-33.
- 이성희, “농촌의 실태와 농정에 관한 분석”, 『달구』, 1960, pp.63-71.
- 이일구(이종률의 필명), “[백만독자의 정치학] 반동체제란 이러한 것-싸우며 있는 하나의 국제세력”, 『국제신보』, 1958년 11월 18일.
- 이일구, “[백만독자의 정치학] 태양과 승리는 우리의 것-놀리던 자 세기의 壯途에서 외치다”, 『국제신보』, 1958년 11월 27일.
- 이정환, “미국의 外援정책변경과 한국의 경제성장문제”, 『사상계』, 1959년 12월호, pp.216-223.
- 이창렬, “美·소의 後進國經援競争”, 『사상계』, 1958년 5월호, pp.202-209.
- 임송자, “여순사건과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통해 본 정부와 국회의 갈등·대립”, 『숭실사학』, 35, 숭실사학회, 2015, pp.269-313.
- 임종명, “一民主義와 대한민국의 근대민족국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pp.267-311.
- 장극두, “통일방안: 나의 관점”, 『군성』, 1961, pp.34-37.
-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사이』, 1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pp.135-169.
- 장세진, 『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1945~1972)』, 2018, 서울: 푸른역사.
- 조봉암, “평화통일에의 길”(『중앙정치』, 1957년 10월호), 『죽산 조봉암 전집1』, 1999, 서울: 세명서관, pp.424-450
-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보수·자유·진보의 개방적 경쟁구도를 위하여』, 1998, 서울: 당대.
- 주요한, “우리의 悲願: 해방14년의 風塵”, 『사상계』, 1958년 8월호, pp.18-24.
- 진순출, “이정(里程)없는 회념(廻念)”, 『달구』, 1960, pp.191-196.
- 채장수, “2·28 대구민주운동의 의미론: 민주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1(3), 대한정치학회, 2004, pp.119-141.
- 최병덕, “전통사상적 관점에서 본 2·28민주운동 결의문의 정신과 의미”, 『대구경북연구』, 20(1), 대구경북연구원, 2021, pp.1-25.
- 최일수, “동남아의 민족문학”(『시와 비평』, 1956년), 『현실의 문학: 최일수 비평집』, 1976, 서울: 형설출판사, pp.81-89.
- 프란츠 파농,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2010, 서울: 그린비.
- 함석헌, “새윤리(상)”, 『사상계』, 1956년 4월호, pp.108-127.

- 함석헌,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사상과 실천: 사회에 강건한 기풍이 서야만 멸망에서 생을 보존할 수 있다”, 『사상계』, 1956년 12월호, pp.27-37.
- 함석헌, “할 말이 있다”, 『사상계』, 1957년 3월호, pp.203-214.
-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6·25 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사상계』, 1958년 8월호, pp.25-35.
- 함석헌, “새교육”, 『함석헌전집2』, 1997, 서울: 한길사, pp.397-428.
- 황병주, “탈냉전의 사유와 냉전의 이면: 장세진, 『숨겨진 미래』(푸른역사, 2018)”, 『상허학보』, 55, 상허학회, 2019, pp.423-457.

- Gaddis, J. L., *The Cold War: A New History*, 2007, London: Penguin Books.
- Lee, C. J., *Making a World after Empire: The Bandung Moment and Its Political Afterlives*, 2010,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 Mackie, J. A. C., *Bandung 1955: Non-Alignment and Afro-Asian Solidarity*, 2005,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 Marantz, p., “Prelude to Detente: Doctrinal Change under Khrushchev”,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9(4), 1975, pp.501-528.
- Rostow, W. W., *Eisenhower, Kennedy, and Foreign Aid*, 1985,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Waltz, K.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 Waltz, K.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200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Wallerstein, I., “The world system after 1945”, Eurozine, 2011, <http://www.eurozine.com/articles/2011-04-29-wallerstein-en.html>.

- 경향신문, 1957.02.28., 격증일로의 결식아동.
- 경향신문, 1961.05.10., 대구공기 또 다시 험악.
- 동아일보, 1955.04.20.,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 동아일보, 1955.04.25., 대(對) 공존(共存)이란 무모-갈실장, 반동회의에 성명.
- 매일신문, 1961.03.01., 한돌만에 다시터진 노도(怒濤)같은 외침 2·28기념학생대회.
- 사상계, 1957.02., 움직이는 세계-네루는 성공하였는가?, pp.283-286.
- 사상계, 1958.10., 시드니 후크 對 버트랜드 러셀의 논쟁-최후의 결정, pp.84-100.
- 영남일보, 1960.10.20., 邱大 정치학회 주최 제5회 학생토론회 특등 김정호 경북고등 통일이 가능한 정치노선은 민주사회주의적 노선이다.
- 영남일보, 1960.10.23., 邱大 정치학회 주최 제5회 학생토론회 3등 김문구 협성상고 이념조정이 중요한 과제 왜국적 杞憂主義를 단호 배격.
- 영남일보, 1961.03.01., 기리빛나리 2·28의 정신.
- 영남일보, 1961.04.22., 기성세대에 警告 고교생들도 統韓축진에 한몫 민족통일경조준비위를 결성.
- 영남일보, 1961.05.10., 남북학생교류 데모와 대회로지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서울대학교 학생회 「4·19 제2선언문 및 결의문」 발표, 검

색일 2023.02.14., https://archives.kdemo.or.kr/workoutlog/workoutlog/view/AAP_1961_04_19_n003
위키백과, 평화5원칙, 검색일 2023.02.07.,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99%94_5%EC%9B%90%EC%B9%99.
위키백과, 평화10원칙, 검색일 2023.02.07.,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99%94_10%EC%9B%90%EC%B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검색일 2023.03.01.,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390>.

【 Abstract 】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and the Traces of the Post-Cold War

Ahn, Do Hun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connection between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and post-Cold War, focusing on the school magazines left by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and their activities during the April Revolu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took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United States. If students were trapped in Cold War logic,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criticize the United States, the central country of Free World. However, students affected by the post-Cold War took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U.S. in relation to the Korean Wa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orea-U.S. Economic Agreement. Second,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had a national and peaceful view of North Korea and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ithin the Cold War logic, it would be hard to see North Korea as the same nation and would have recognized it as an enemy to be eradicated. However, students broke away from the Cold War logic and recognized North Korea as the same nation and recognized it as a subject of peaceful reunification. Third,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had a humanitar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If they had not escaped from the Cold War logic,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Korean War and humanitarian perspective on the tragedy of the war. However, students showed an attitude of accepting the post-Cold War consciousness by revealing the misery of war and showing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use of weapons.

Key Words :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Post-Cold War, Cold War, Bandung Spirit, Peaceful Coexistence

• 논문투고일 : 2023년 4월 2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5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5월 15일

